

2000년대 이후 한국 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출판 현황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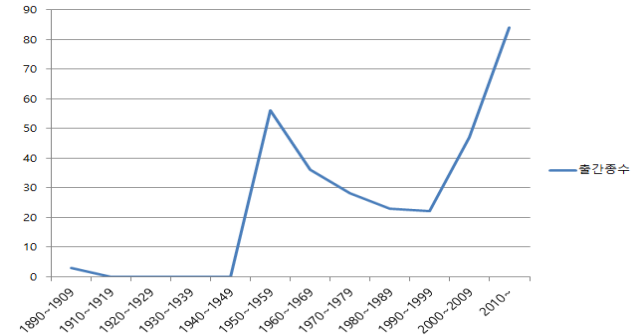
한 현 희
(경희대)

1. 서론

대중문화의 해외 유행을 일컫는 한류라는 낯설었던 신조어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자리를 잡은 지 어느덧 20년을 향해간다. 가요, 드라마에서 시작한 이 바람이 러시아에도 닿아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열풍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7년 러시아 최초 대학인 상트페테르부르크대의 한국학과 개설이다. 1897년 민영환 공사 사절단의 통역관이던 김병옥 선생이 이 학교에 남아 유럽 최초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동양학부에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 교육이 이루어진지 120년 만에 한국학과로 독립한 것이라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드라마나 가요를 뛰어 넘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역사, 전통문화, 문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한국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출간은 [그림 1]과 같이 1890년대 말을

시작으로 전성과 쇠퇴를 맞이하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러시아어권 한국문학 번역서 출간 통계(종수)



그러나 무려 120년의 문화 및 문학 교류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 번역의 보급과 대중화는 초라한 성적이다. 한국문학은 동양문학 가운데에서도 일본 및 중국 문학에 밀려 베스트셀러는 고사하고 대중에게 알려진 변변한 작품 하나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어떤 작가의 작품이 누구에 의해 번역 출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연구가 2000년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엄순천 2003, 2004). 한국문학 번역 현황에 관한 정성적 연구 또한 설화(전성희 2008)나 고전문학(최인나 2007), 개별 문학작품의 수용 사례 분석(엄순천 2006)에 그치고 있어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번역 현황과 러시아 문학 시장에서의 한국문학 입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의 출판 현황, 동향, 특징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한국문학 번역의 문제점과 향후 러시아에서의 한국문학 보급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어권 한국문학번역서지목록¹⁾을 작성하여 장르, 작가 및 작품, 번역사, 출판사에 대한 정보를 통계적으로 가시화하여 제시 및 분석하겠다.

1) 러시아어권 한국문학번역서는 구소련을 제외한 러시아에서 출판한 도서만을 대상으로 한다. 서지목록은 한국문학번역원이년도, 작품명, 작가명, 번역사명, ISBN을 데이터화하여 소장한 목록에 기반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오류 수정, 각각의 카테고리별 추가 정보를 조사·기입하여 작성하였다.

2. 한국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100년사(史)

러시아에서 최초 소개된 한국문학은 『조선설화(Корейские сказки, записанные осенью 1898 года)』²⁾이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8년 가린-미하일로프스키가 한반도 북쪽 지방을 여행하던 당시 한국의 전설과 민담, 설화를 수집 및 채록하여 번역 출간한 서적으로, 당시 러시아는 물론 유럽 지역의 한국 설화 번역 및 출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전성희 2008: 261). 뒤이어 러시아에서 동양문학의 번역은 1900년대 초에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1904~1905년 러일전쟁 패배 이후 러시아는 일본과 주변국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1900년 러시아 재무부가 편집 발간한 『한국에 대한 기록(Описание Кореи)』은 한문 문학부터 한글로 쓰인 시, 소설, 설화 등 산문 및 운문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간행물 역할을 하였다(엄순천 2003: 61; 최인나 2007: 262).

그러나 본격적으로 한국문학의 연구와 번역이 이루어진 것은 [그림 1]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최초의 한국문학 번역서 출간 이후 40~50여년의 공백기를 거친 이후인 1950년대였다. 한국문학에 대한 학술서적이거나 번역서도 갖추지 못한 당시 한국문학 연구의 중심지는 홀로도비치(Холодович, 1906~1977)³⁾를 주축으로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구 레닌그라드) 학파와 미하일 박(Михаил Пак, 1918~2009)⁴⁾을 주축으로 하는 모스크바학파였다. 모스크바학파가 실용성 위주의 학풍을 견지하며 현대문학 및 한국사 연구에 전념했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 학파는 순수학문을 지향하는 학풍을 견지하며 전통문학을 중시하였다(엄순천 2003: 61; 최인나 2007: 262-263). 이에 상트페테르부르크학파는 한국문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고전문학 서적 번역 및 발간, 번역서의 서문이나 후문 등의 집필에 힘을 쏟는 등 동양자료 수집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이혜은 2015: 60).

- 2) 작품명은 한국어 원서 제목을 기준으로 제시하겠다. 단, 한국어 원서명이 부재한 경우 한국문학번역원 서지목록 기준의 한국어와 러시아어 제목을 병기하여 소개한다.
- 3)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한국어과 교수이자 한국어학자 홀로도비치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워 한국어의 러시아어 문자 표기법 중 하나인 홀로도비치 표기법을 고안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한·러 사전을 편찬하였다.
- 4) 모스크바 국립대 공훈교수 미하일박은 러시아 내 한국학의 대부이자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 노릇을 해왔다.

이 두 학파의 지대한 공로에 힘입어 1950대에만 56종, 1960년대 36종의 한국문학 번역서가 출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⁵⁾. 그러나 1950년대는 6.25전쟁 이후 구소련의 도움으로 북한이 해방된 직후였기 때문에 북한과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가 빈번한 시기였고, 이로 인해 한국문학 전문가들도 북한문학 중심으로 연구 및 번역을 활발히 시작하던 때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한문학 위주의 연구 및 번역 편향성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남한과 공식 수교관계를 맺는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1970년대는 한국학 전문가들이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된 고전 번역에 관심을 기울이며 전래동화 위주에서 신화, 전설, 민담까지 영역을 확장하던 시기였다(엄순천 2003; 최인나 2007). 그 결과 1970년대에는 한문학을 비롯한 총 28종, 1980년대에는 23종의 한국문학이 번역 발간되었다.

1990년대는 한국문학 번역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시기였다. 구소련 해체로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붕괴되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면서 남한과의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의 현대문학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문열 등의 『한국현대소설선』(1994), 김주영의 『친동소리』(1999)를 비롯하여 22종의 한국문학이 번역 출간되었다.

1990년대 이후 러시아 내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새로운 현대문학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한국문학은 러시아 문학계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2000년대 이후 러시아내 한국문학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3. 분석결과

2000년대 이후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의 출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행본 기준으로 121종이 집계되었다. 이는 한국문학 번역이 태동된 이래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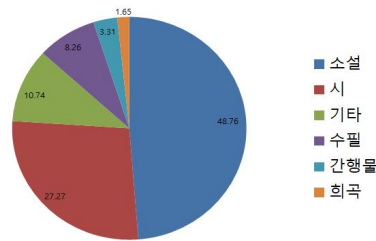
- 5) 본 장에서 제시하는 번역출간 종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노어권 한국문학번역서 출간 도서목록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대 이전까지 단행본 기준 총 139종⁶⁾으로 기록된 것과 비교해볼 때 지난 100년에 버금가는 기록적 수치로서 한국문학 번역의 발전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성과에는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역할이 지대하다. 121종 가운데 80종이 이들 기관의 지원에 힘입어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3.1 장르별 번역 현황 조사 및 분석

분석대상 121종의 한국문학 번역서를 장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한국문학 러시아어 번역서의 장르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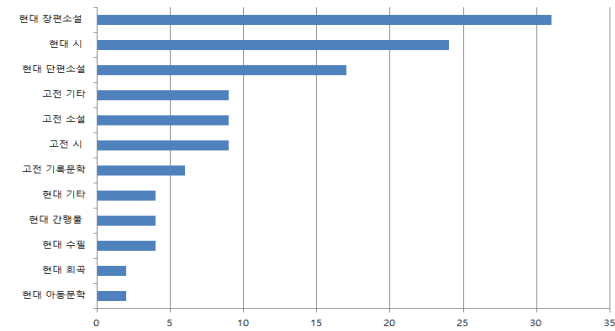
분석 결과 소설이 단행본 기준 59종(48.7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러시아인들의 소설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번역자들의 소설 번역 선호도 때문이다(엄순천 2003: 339). 다음으로 시 33종(27.27%), 기타 13종(10.74%), 수필 10종(8.26%), 간행물 4종(3.31%), 희곡 2종(1.65%)⁷⁾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0년대 이전 전체 139종 가운데 소설이 53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기타 36종, 시 30종, 정기 간행물 11종, 장르 혼합 4종, 희곡 3종 순으로 나타

6) 139종은 엄순천(2003)이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 번역서지목록, 한국문학번역원 소장 목록, 관련 학술 논문, 인터넷을 통한 도서 추적, 러시아 현지 도서 구입 및 목록화, 구입된 도서의 서문, 주해, 후기 등 참조, 러시아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작성한 서지목록 기준이다. 한국문학원이 집계한 자료에 근거하면 총 165종으로도 파악되지만, 본고에서는 비교 분석을 위해 엄순천(2003)의 집계를 활용하기로 한다.
7) 일반적인 문학 분류에 따라 산문인 소설, 운문인 시, 극문학인 희곡, 일반 수필과 편지, 기록문학(전기, 일기, 기행문, 실록 등)을 아우르는 수필, 간행물, 기타로 카테고리(나무위키)를 설정하기로 한다.

난 결과(엄순천 2003: 66)와 유사하다. 수필을 기타로 분류할 경우 소설, 시, 기타가 전체 장르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체 번역서를 시대-장르별로 분류해보면 현대문학이 89종으로 32종에 불과한 고전문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2000년대 이전 139종 가운데 고전문학이 68종, 현대문학이 70종, 고전/현대 혼합이 1종(엄순천 2003: 65)으로 고전과 현대문학이 균형을 이루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한국문학 번역출간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시대-장르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한국문학 러시아어 번역서의 시대-장르별 비중(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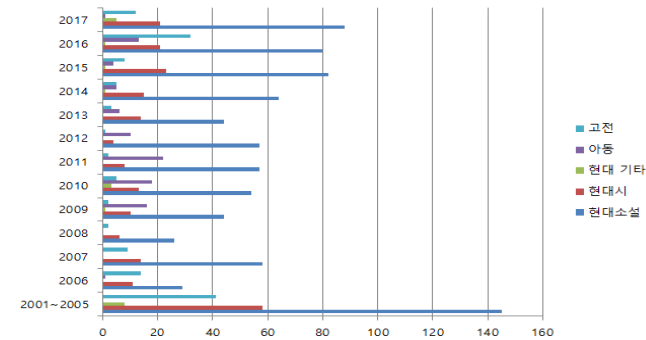
상기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러시아어 번역은 현대 장편소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현대 시, 단편소설이 함께 이끌었다. 이는 고전 기타가 단행본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2000년대 이전과는 상이하나, 다음 순으로 현대 소설, 현대 시, 현대 단편소설, 고전소설, 고전 시 순으로 나타난 동향(엄순천 2003: 65)과는 유사하다.

고전과 현대문학을 구분하여 세부 장르별 번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전문학의 경우 기타 9종, 소설 9종, 시 8종, 기록문학 6종을 차지하는데, 이는 고전 기타, 소설, 시, 혼합, 희곡 순으로 나타났던 2000년대 이전의 출판 현황과 동일하다(엄순천 2003: 65). 다만 2000년대 이전 고전 혼합장르와 희곡이 소개된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이와 같은 장르의 번역 부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문학의 경우 소설 48종, 시 25종, 기타 10종, 수필 4종, 희곡 2종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필을 기타로 포함시킬 경우 소설, 시, 기타, 희곡

순으로 나타난 2000년대 이전의 번역 현황(엄순천 2003: 65)과 동일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번역 동향이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 특히 현대소설 장르로 판세가 크게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번역 배경의 역사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이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 가능하다. 한국문학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50년대 한국문학 번역은 주로 전통문학 연구를 중시하던 페테르부르크 동방학과의 한국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2000년대 이전 출간된 한국문학은 주로 이들의 고전문학에 대한 열정과 이에 뒷받침되는 번역 활동의 산물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학번역원이 1990년대 말 설립⁸⁾, 2000년대부터 번역지원사업 일환으로 문학, 인문사회, 아동·청소년 소설, 장르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번역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번역지원대상 도서 선정 방식이 지정공모 외에도 번역사가 자유로이 작품을 선정하는 자유공모로 운영되면서 한국문학 번역사의 범주가 동양학 혹은 한국학 전공자라는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번역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이들의 재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 번역사들에게 고전문학 번역은 가히 쉬운 영역이 아니다. 더욱이 대산문화재단에서도 자유공모와 동시에 전년도 대산문학상을 받은 시, 소설, 희곡 부문의 수상작 등 현대문학 위주의 번역 대상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결국 많은 번역사들이 고전보다는 현대문학, 그 가운데에서도 시보다는 소설 번역 지원에 더 많이 응모하였고, 이것이 현대소설 번역의 양적 팽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출판지원사업 장르별 현황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출판지원 장르별 통계(종수)



상기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이후 현대소설에 대한 번역지원이 줄곧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고전번역 지원은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 미미한 실정이다. 결국 이와 같은 국내 기관들의 번역출판지원 현황이 러시아어 번역 장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2 작가별 번역 현황 조사 및 분석

3.2.1 고전문학 작가별 번역 현황 조사 및 분석⁹⁾

*고전시 (시조, 한시, 향가, 가요 등)

2000년대 이후 고전시는 9종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작품은 『한국한시선 백송이의 꽃(Сто цветов. Антология корей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поэзии)』(2014)이다. 김시습, 원효, 정몽주, 최치원 등이 9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쓴 한시 250여 편을 담은 시집으로서 대부분 처음 번역되어 선보인 작품들이다. 이백, 두보, 왕유, 바쇼와 같이 이미 러시아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중국 및 일본 시문학에 비해 한시는 상대적으로 늦게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뜨겁다¹⁰⁾. 현지 언론, 비평가들의 반응 또한 한시

8) 1996년 한국문학번역금고라는 명칭으로 설립, 2001년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으로 조직 확대 출범, 2005년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9) 지면관계상 주요 작가의 작품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10)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문학신문)는 동 시집을 2013년 11월 둘째 주 금주의 책으로 선정하였고, 러시아 최대 서점 Дом книги(서점)에서는 단테 알리기에리, 위

의 절제미를 칭송하며 호평일색이다¹¹⁾.

다음으로 대표적인 작가는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이다. 한글을 문학어로 활용한 최초의 인물이기에 민족어의 연금술사라 불리는 정철은 시와 산문, 특히 가사 문학에서 한글을 문학적으로 승화 및 발전시킨 문인이다. 러시아에서 송강은 푸슈킨과 비견된다. 푸슈킨 또한 러시아어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살린 위대한 작가로서 국민 시인이라 불리우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소개된 최초의 한국 시인도 정철이며, 조선중기 작품 가운데 정철의 시조가 러시아 한국고전문학 전공자 사이에서도 최고로 뽑힌다. 정철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하듯 그의 작품은 2000년대 이전에도 「사미인곡」, 「속미인곡」, 「관동별곡」, 「장진주사」 등 가장 많이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엄순천 2003: 69) 『송강가사전집: 외로운 학(Одинокий журавль)』(2009)과 『鄭澈 松江 詩歌(Сборник стихов Сонгана: Поэзия Сосновой Реки)』(2013) 이 번역 출간되었으며, 정철의 러시아어 번역시가 처음 선보인 『한국의 고전 시가』(1956)가 『한국고전시선집(Корей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поэзия)』(2017)으로 재탄생되었다.

그 밖에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작품이 세 차례 번역 출간되었고¹²⁾,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악장(樂章)문학인 『용비어천가』(2011) 또한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되었다¹³⁾.

스턴 휴 오든 등 유명 작가 작품과 함께 해외운문 부문 베스트셀러 5위권 내에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다(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 11)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독립신문)는 한시를 두고 절제된 표현에서 나오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한시선』은 한시 특유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잘 드러내준다고 평가하였다(양은하 2014/02/19). 비평가들 또한 『한국한시선』에 수록된 많은 시가 끝내 못 전한 말들로 감동을 자아내며,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한 대화로의 초대이자 절제미라고 칭송한다(Широков 2003/12/19).
- 12) 『한국한시선집(Рисунки тушью)』(2015)과 더불어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에 이르기까지 8세기~19세기 쓰여진 고전 시로 구성된 『한국고전시가전집(ОСЕННИЕ КЛЁНЫ)』(2012), 김삿갓의 『푸른산(Зеленые горы)』(2000)이 번역 출간되었다.
- 13) 이는 홀로도비치의 선구자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최초로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사료에서 발췌한 주해 및 해석을 달아 완벽한 첫 번째 결과물이며, 한국어학, 시학, 역사학, 문화학, 철학 연구자들은 물론 한국 고전을 새롭게 눈뜨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역자 서문).

* 고전소설

2000년대 이후 출간된 고전소설은 총 9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된 작품은 작자 미상의 『춘향전』이다. 『춘향전』은 러시아에 제일 먼저 소개¹⁴⁾된 한국문학일 뿐만 아니라 출판 부수나 한국문학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으로서도 가장 기록적인 작품이다(엄순천 2006: 6). 『춘향전』이 많이 번역된 이유는 그 속에 봉건 조선사회가 지닌 사회적 모순과 계급적 갈등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한국 리얼리즘 소설의 정수가 담겨있기 때문이다¹⁵⁾(엄순천 2004b: 340). 그러나 아나톨리 김(Анатолий Ким)은 한국적 여인상과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춘향이 러시아의 문호 푸슈킨이 쓴 시 형식의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 속 정숙하고 사랑이 넘치는 여주인공 타티아나를 꼭 빼닮아 러시아 독자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김기현 2002/12/06; 최재봉 2016/09/22). 이를 반영하듯 『춘향전』은 2000년대 이전에도 이미 5권의 단행본(1959, 1960a, 1960b, 1968, 1990)으로 번역,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춘향전』(2000), 『18~19세기 중세 소설: 춘향전』(2009)이라는 명으로 재출간되었다.

그 밖에 다수 번역 출판된 작품은 김시습(1435~1493)의 『금오신화』¹⁶⁾, 김만중(1637~1692)의 『구운몽』¹⁷⁾, 김재국의 『한국소설집』¹⁸⁾, 김재국과 방정식의

14) 1897년 페테르부르크대 동양어학부 한국어 교재용으로 김병옥에 의해 최초로 한국어 교과서에 춘향전 일부가 삽입되었다(엄순천 2004a: 182).

15) 에르멘코는 춘향전에 드러나는 사회적 모티브가 매우 날카롭다고 설명한다. 봉건조선의 계급구조가 정확히 반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반들의 착취와 횡포가 비판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Ерменко 1964: 16; 엄순천b 2004: 340 재인용).

16) 『금오신화』는 1970년대 한문문학 번역이라는 새로운 고전번역 문화의 분위기에 힘입어 1972년 최초 번역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심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김시습: 금오신화』(2003), 『금오신화』(2011)가 새로이 번역 출판되었으며, 후자에는 권필의 『주생전』, 작자미상의 두 작품 「운용전」과 「추풍감별곡」이 담겨있다(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17) 조선의 문인이자 작가인 김만중의 『구운몽』은 2000년대 이전 두 차례 번역 출간(1861, 1982)된 바 있으나 2010년 재출간되었다. 여기에는 김만중의 최초 한국소설로 기록되는 「사씨남정기」번역도 수록되어 있다.

18) 1884년~1886년 조선총재 영국총영사를 역임했던 애스틴의 조선어 교사인 김재국은 애스틴의 조선어 교육을 위해 소설들을 기록하였다(최인나 2007: 264). 이후 애스틴의 소장본을 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소에서 구매하였고(이혜은 2015: 65-66), 1959년 『한국소설』이라는 소설집으로 러시아 독자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으며 『한국소설

『19세기 단편소설집』¹⁹⁾, 작자미상의 『창선감의록』²⁰⁾ 등이 있다.

2000년대 이후 고전소설 번역은 과거 소비에트 시절 한국고전문학 연구의 중심인 상트페테르부르크대 교수진에 의해 번역 출간되었다가 절판된 작품들을 새로이 편집하여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러시아에는 북한 편향 위주의 번역 문학 풍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한보다는 북한이 고전 번역을 선도해왔다(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그러므로 러시아어로 번역된 고전문학 또한 북한어 번역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러시아어 고전소설의 재출간은 한국 고전문학의 명맥을 잇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장르나 작가, 주제의 다양성 등 새로운 고전소설을 발굴하여 번역 소개하지는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설화/ 기록문학 등

2000년대 이후 고전 설화 및 전래동화, 기록문학은 14종 번역 출간되었다.

설화의 경우 한국 문학번역의 효시로 꼽히는 가린-미하일로프스키의 『조선 설화(Награда царя птиц: Корейские сказки с иллюстрациями)』가 2012년 재출판되어 다시금 러시아 독자들을 찾았다. 그의 작품은 작가로서 본인이 들은 이야기들을 문학적으로 윤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자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전성희 2008: 262).

한편 알렉산더 멜리호프²¹⁾와 카란다쉬(карандаш(연필)) 번역 팀²²⁾이 눈

집』(2004)이라는 명칭으로 재출간되었다.

- 19) 김재국과 방정식의 진귀한 필사본으로 구성된 『19세기 단편소설집』은 『19세기 한국소설 여관에서 한가한 대화(Досушие беседы на постоялом дворе: КОРЕЙСКИЕ РАССКАЗЫ XIX ВЕКА)』(2016)라는 제목으로 재출판되었다.
- 20) 『창선감의록』은 1970년대 시작된 한문 번역 분위기에 힘입어 1985년 번역 출판되었으나(최인나 2007: 271) 2017년 재출판되었다.
- 21)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국문학번역원은 ‘러시아 저명 작가 초청 및 집필 지원’ 특별 사업 일환으로 작가이자 문학비평가 및 칼럼니스트로 러시아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알렉산더 멜리호프의 저작 집필을 지원하였다. 그 결실로 한국전래동화가 『한국: 동화를 찾아서(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поисках сказки)』(2011)라는 책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다.
- 22)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결성한 한러 전래동화 번역회 카란다쉬는 3,4,5세대로 내려오면서 한국문화와 한국어의 뿌리를 상실해 가는 고려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길을 끈다. 이들은 한국 문화 및 문학이라는 주제로 기획 집필 및 번역 프로젝트 완수라는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기존 고전문학 번역의 문화를 바꿨기에 의의가 크다.

기록문학을 살펴보면 이기백(李基白, 1924~2004)의 『한국사신론』(2000)²³⁾,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의 『삼국사기』(2001)²⁴⁾, 각훈(覺訓, 미상~미상)의 『해동고승전』(2007)²⁵⁾, 『한국한문학선집』(2010)²⁶⁾, 『알기 쉽게 풀어쓴 훈민정음(Хунмин чонгьым: изложенный простым языком)』(2010)²⁷⁾, 이순신의 『난중일기』(2013)²⁸⁾가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번역되어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록문학은 사료적 접근성, 저본 확보의 어려움, 고도의 언어, 역사, 문학적 전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번역서를 재출판하기보다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여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기금을 마련하여 러시아어로 동화책을 번역하였다.

- 23)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는 『한국사신론』이 구소련 시절부터 한국사 연구자들의 필독서로 여겨질 만큼 중요하게 평가되어 왔기에 동 번역서가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Банин 2001; 김기현 2001/03/18 재인용)
- 24) 러시아에서는 첫째권인 「신라본기」가 1959년 출판, 둘째권인 「고구려본기」, 「백제본기」가 1995년 출판되었으며, 셋째권인 「잡지」, 「열전」이 2002년 번역되어 빛을 보게 되었다(배영대 2003/03/25)
- 25) 고승들에 대한 전기 기록한 승전(僧傳)인 『해동고승전』의 러시아어 번역본은 논평과 주해가 함께 수록된 덕분에 불교학자, 역사학자, 문학연구자들, 한국전통문화에 관심있는 독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6) 11~18세기에 이르기까지 한문으로 쓰인 대표적 고전문학 작품들을 모은 것으로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일연의 「삼국유사」 등 고대 삼국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대표적인 일화들에서부터 조선 시대 박지원의 「열하일기」 일부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이규보의 「남행월일기」, 「명반오문」, 동문선 「죽부인전」, 각훈 「해동고승전」 등 한문으로 기록된 주옥같은 한국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 27)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에 널리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국립국어원이 기획하여 영어판, 중국어판 등을 발간한 이후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어판을 발간하였다(국립국어원 홈페이지).
- 28) 이순신의 『난중일기』(2013)는 노승석 여해고전연구소장의 완역본을 저본으로 삼아 러시아어로 번역된 것이다. 노승석은 2010년 초서로 쓰여 읽어내지 못했거나 오역된 부분을 수정하고 을미년(1595)에 쓰인 32일치 일기를 새로 발견해 추가하여 국내 최초로 난중일기를 완역한 바 있다(이천열 2012/02/13).

3.2.2 현대문학 작가별 번역 현황 조사 및 분석

*현대시

현대 시는 총 24종 번역 출간되었는데, 이 가운데 특정 단일 시인의 시/시선집이 17종, 여러 시인의 시선집이 6종, 기타 1종으로 집계된다. 이들 모두 한국 시인들의 작품인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이전의 시 번역 동향과 크게 대비된다. 2000년대 이전에 번역된 현대 시의 절반 가량이 조명희, 조기천과 같은 북한 시인들의 작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일 작가보다는 여러 작가의 시들이 시선집으로 묶여 번역 출간되었기 때문이다(엄순천 2003: 71)

단일 시인의 작품 번역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소개된 작가가 김소월, 윤동주, 정호승이다²⁹⁾.

일제 강점기 시인 김소월은 서구 문학이 범람하던 시대에 민족 고유의 정서를 바탕으로 둔 시를 쓴 민족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소월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미의식을 대표해 남북한에서 모두 인정받고 있는 드문 시인이며, 그동안 세계문학 맥락에서 그를 조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고리키 문학대 교수 김여춘은 평한다. 더불어 김소월의 시가 비판적 인생관, 슬픈 서정성 측면에서 푸슈킨의 서정시와 닮아있다고 설명한다(김기현 2003/06/08). 김소월의 시는 1958년에 이미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으며, 그의 시어는 한국 문화의 귀중한 자산이자 빼앗긴 조국에서도 민족어를 지킨 숭고한 정신으로 러시아에서도 각인되고 있다. 그리하여 『김소월 시집』(1962)이 『김소월 그리고 강변 살자(Ким Соволь и торопятся к морю реки)』(2002)로 재출간되었다. 또한 한-러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진달래꽃』(1925)에 실린 120편의 시가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진달래꽃: 김소월 시선집(Ким Соволь: Лирика)』(2003)으로 출간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저항시인 윤동주는 다른 저항시인들과 달리 철저히 자기 내면세계를 성찰하면서 식민지 지식인의 부끄러운 내면을 고백하는 것이 특징이다(한국문화재단 홈페이지). 1948년 그의 유고 30편을 모은 시집 『하늘과 바

람과 별과 시』가 세상에 나오으로써 그는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2016)가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2017년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시와 산문 총 123편이 러시아어로 완역되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2017)에 실려 출간되었다.

우리 시대 대표적 서정시인 정호승은 그의 시 60여 편이 가요, 가곡으로 재창작되었을 정도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꼽힌다. 평이한 언어로 깊은 울림을 낳는다는 평가를 받는 그의 시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시 101편을 가려 엮은 시선집 『수선화에게』(2017), 인간과 자연의 존재 원리로서 사랑과 외로움의 숙명을 노래한 80편의 시편이 담긴 여섯 번째 시집 『외로우니까 사람이다』(2018)가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러시아 유력 문예지 『Иностранная литература(외국문학)』는 2014년 6월 <한국현대시 특집>을 마련하여 고은, 김지하, 정호승, 최동호, 문정희, 김기택, 조정권, 조오현, 이문재, 신경림, 박이도, 장석남까지 총 12명 시인의 대표작품 20여 편의 번역시를 선보였다. 한국현대문학 특집호(2016)에도 서정주, 김승희, 정호승의 번역시가 실려 러시아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러시아 계간지에 한국 시가 소개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1949년부터 조선민중 해방 테마로 한 북한 시인들의 시작품이 중앙과 극동 지방의 정기간행물 중심으로 소개된 바 있고 『동양문학선 12호』(1958년)에 김소월 시가 번역되었기 때문이다(엄순천 2003: 62) 그러나 1891년에 설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독자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외국문학과 작가를 소개해 온 러시아 유일의 권위 있는 『외국문학지』는 번역 및 편집진의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독자 수 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그러므로 한국시 특집호와 같은 행보는 한국 시문학이 점차 러시아 내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소설

현대소설은 총 49종 번역 출간되었다. 이 가운데 31종이 특정 작가의 장편소설, 15종이 특정 작가의 단편선, 3종이 여러 작가의 단편을 엮은 단편선이다.

단편소설을 살펴보면 총 48명 작가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김동인이 3종, 김애란, 김영하, 박완서, 이광수, 이효석, 최서해가 각각 2종, 그 외 34인 작가³⁰⁾

29) 그 밖에 오세영, 김지하, 문정희, 송찬호, 김남조, 고은, 이규형, 정지용, 신동준, 김양식, 정현중 시인의 시집이 2000년대 이후 선보이고 있다.

의 작품이 1종씩 소개되고 있다. 장편소설의 경우 25인 작가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이문열이 3종으로 가장 많이 번역 출판되었으며, 박완서, 박경리, 신경숙이 각각 2종, 그 밖에 21인 작가³¹⁾의 작품이 1종씩 소개되었다. 이는 과거 장편으로는 김주영, 단편으로는 이문열, 최인훈, 박경리, 오정희 작가가 유일하게 소개되었던 상황과 비교해볼 때 크나큰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 소설분야에서도 『외국문학』이 한국현대문학 특집호(2016)를 발간하여 채만식, 황순원, 이문열, 오정희, 구효서, 안도현, 김연수, 김중혁, 김애란의 소설을 실었다.

그리하여 2000년대 이후 한국소설의 번역 출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문학에서 순수문학 소개로의 궤도 전환이다. 과거 러시아어로 번역된 현대 단편소설은 최서해, 박용걸, 조명희와 같은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었다(엄순천 2003: 72). 그러나 1990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성이 다소 주춤하다가 2000년대 이후 크게 바뀌었다. 최근 번역 소개된 소설의 주요 주제와 소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까지를 시대 배경으로 하여 한국근대사의 격변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고통과 삶, 민족적 한과 그 극복 의지를 사실적, 민중적, 역사적으로 그린 대하소설, 가족사 소설, 연대기 소설이 있다. 대표적으로 염상섭의 『만세전』(2009),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2011), 『토지』(2016)가 있다. 다음으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이 발표되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전후의 사회 현실을 바탕으로 민족 분단의 비극적 상황, 전후의 가치관 혼란, 부조리한 현실 고발, 인간의 본질적 삶 등을 형상화한 전후소설, 성장소설, 회고소설이다. 그 예로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2016),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2015),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2017), 최인훈의 『광장』(2002), 이호철의 『남녘사람 북녘사람』(2014),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2009)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격변하는 한국현대사에서 정치, 권력의 모순 및 사회상, 소통과 연대를 그린 소설이 있으며, 그 예로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2014), 김연수의 『윈더 보이』(2015)를 들 수 있다. 더불어 현대 한국 사회만이 안고 있는 탈북자, 난민, 불법이민자를 소재로 한 작품이 있는데 황석영의 『바리데기』(2015),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2016), 천운영의 『잘가라, 서커스』(2015)가 그것이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현대 사회 인간의 고독, 삶과 죽음, 가난과 결핍, 개인성 균열과 심연, 비루한 일상, 인간의 욕망, 상처와 같은 동시대인의 보편적 사랑과 치유, 성장과 공감이다. 최인호의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2016), 천명관의 『고령화 가족』(2013), 김애란의 『달려라 아버지』(2015), 김영하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2016), 김연수의 『세계의 끝, 여자친구』(2014), 천운영의 『그녀의 눈물 사용법』(2015),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2017),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2012)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이 한국 현대소설 번역 소개에 더욱 활발한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한 결과이다. 총 49종 소설 가운데 5종을 제외한 번역서가 상기의 번역지원 기관을 통해 출간된 것이 이를 입증하는 대목이다.

두 번째 특징은 여성 작가 작품의 활발한 소개이다. 48명의 작가 가운데 19명이 여성이다. 한국문학사의 대모라 할 수 있는 박경리를 위시하여 권비영, 은희경, 한강, 정이현, 조해진, 박완서, 천운영, 김애란, 공지영, 신경숙, 이현수, 오정희, 윤후명, 공선옥, 은희경, 김별아, 오수연, 은희경의 소설이 번역 출간된 것이다. 2000년대 이전 현대소설 가운데 박경리, 오정희가 유일하게 소개된(엄순천 2003: 72-73) 여성 작가임을 고려해볼 때 이는 매우 큰 변화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 서점가의 분위기가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시장을 이끌던 작가는 이문열, 조정래, 황석영, 최인호, 이외수, 김홍신, 박범신 등이었으며, 이들은 한국 소설의 전성기를 열었다. 그러나 1990년대 공지영, 신경숙, 은희경, 양귀자 등과 같은 여성작가들이 새로운 베스트셀러 작가군을 형성했다. 그리고 2000대 여전히 공지영, 신경숙, 은희경 등 여성작가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정유정, 김애란과 같은 신예 여성작가가 등장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허연, 이경진 2011/11/09). 한국문학번역원과

30) 계용목, 김동리, 김별아, 김성한, 김승욱, 김연수, 김유정, 김중혁, 나도향, 박태원, 신경숙, 안수길, 안희남, 염상섭, 오수연, 오정희, 윤대녕, 은희경, 이광수, 이상, 이평재, 임호월, 장정일, 정한숙, 주요섭, 전성태, 천운영, 최인석, 최인훈, 하근찬, 한창훈, 현상윤, 현진진, 황순원의 작품(집)이 소개되었다

31) 공선옥, 공지영, 권비영, 김연수, 김원일, 김주영, 오정희, 윤후명, 은희경, 이승우, 이청준, 이현수, 이호철, 정이현, 조해진, 천명관, 천운영, 최인호, 한강, 황석영의 작품이 2000년대 이후 번역 소개되었다.

대산문화재단의 번역지원사업이 지정사업 외에 자유공모로 운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결국 번역사가 국내 문학계 동향과 베스트셀러 위주로 번역 대상서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수상작이나 수상 가능성이 있는 소설이 많이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2016 맨부커 국제상 수상작인 한강의 『채식주의자』, 해외문학상 최초 수상작인 오정희의 『새』, 1987 이상문학상 수상작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79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대산문학상 수상작 이호철의 『남녘사람 북녘사람』, 2008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 「엇박자 D」가 수록된 한창훈의 『나는 여기가 좋다』, 2001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 「그리움을 위하여」가 수록된 박완서의 『친절한 복희씨』 등이 러시아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르 클레지오가 한국 작가 가운데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가로 꼽은 이승우의 『식물들의 사생활』 또한 번역 출간되었다. 현대소설의 번역지원 사업이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기치로 삼아 외국에 알릴만한 가치가 있거나 세계적인 문학 수상 가능성이 있는 문학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와 같은 현상은 당연하다.

*수필/ 희곡/ 아동문학

현대 수필, 희곡, 아동문학, 기타 장르는 총 8종 번역 출간되었다.

수필 장르에서는 김효자의 『이별과 만남』(2003), 피천득의 『인연』(2009), 이어령의 『흙 속에 저 바람속에』(2011)가 번역 출간되었다. 과거 전숙희의 『수필집』(1993)이 유일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점차 수필장르로도 한국문학 번역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희곡 장르에서는 최인훈의 희곡집 『옛날옛적에 휘어어 휘이』(2004)³²⁾와 『한국연극 1』(2004)³³⁾ 이 번역 출간되었다. 2000년대 이전 북한에서 공연된 작품

32) 한국 극문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최인훈은 우리 민족의 심상이 투영된 신화나 설화 속에서 보편적인 모티프를 찾아 재창조한 희곡들을 선보였다. 『옛날옛적에 휘어어 휘이』 국문본에 실려있는 7편의 희곡 가운데 러시아어 번역서에는 「옛날 옛적에 휘어어 휘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세 편이 담겨있다.

33) 『한국연극 1』은 유치진의 「처용의 노래」, 함세덕의 「동승」, 오영진의 「맹진사댁 경

만 소개되고 남한의 희곡은 전혀 번역되지 않았던 현실을 돌아켜볼 때(엄순천 2003: 74)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동문학 번역에서도 성과가 있다. 아동문학 소개가 전무했던 과거와 달리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과 오진원의 『플로라의 비밀』이 모두 2015년에 번역 출간된 것이다.

3.3 번역사별 번역 현황 조사 및 분석

2000년대 이후 출판된 한국문학 번역서에 이름을 올린 번역사는 총 106명이다³⁴⁾. 이 가운데 러시아인 번역사³⁵⁾가 57명, 한국인 번역사가 33명³⁶⁾, 고려인 번역사가 16명으로 집계된다. 러시아인 번역사의 큰 비중은 이전과 동일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대부분의 한국문학 번역이 러시아인 번역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2000년대 이전 한국인 번역사가 10명³⁷⁾, 고려인 번역사가 고작 5명³⁸⁾으로 이들의 번역활동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는 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성별로 분류해보면 103명의 번역사 가운데 어문학 전공 53명, 일반 번역사³⁹⁾ 28명, 문학 작가 12명, 기타 전공 10명(예술학, 문화학, 고대사, 한국사

사, 윤대성의 「출발 이 실려 있다. 유치진의 「처용의 노래」를 비롯한 두 편은 이미 러시아 연출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곧 러시아 연극무대에 올려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함세덕과 오영진은 러시아의 로조프나 발로진 등과 비슷한 세대의 작가들이기에 주목받고 있다(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34) 2000년대 이후 출간된 한국문학 번역서의 번역사에 대한 통계로서, 재출간된 서적의 경우 과거 활약했던 번역사와 일부 중복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35) 편의상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러시아 및 CIS 출신 번역사를 「러시아인 번역사」로 통칭하기로 한다.

36) 고려대학교 학생번역팀 카란다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인적 구성을 일일이 반영할 수 없는 만큼 1명으로 대표하기로 한다.

37) 2000년대 이전 활동한 한국인 번역사로는 김규철, 김근식, 김연호, 김진영, 서만일, 이수경, 장일, 주선언, 한병조, 한윤준이 있다(엄순천 2003: 80).

38) 2000년대 이전 활동한 고려인 번역사로는 박일, 임수, 조영길, E.제, E.최, A.한이 있다(엄순천 2003: 80).

39) 일반 번역사는 한국학, 노어노문학 전공과 무관하게 한국어와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 번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으며 영노 번역사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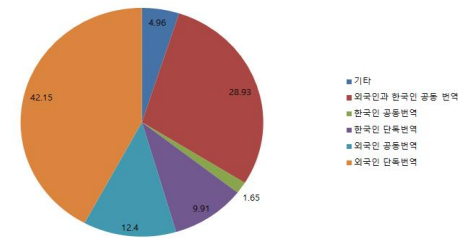
등)으로 집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인 번역사의 경우 동양학/한국학 전공 18명, 동양학/한국학/통번역 전공 6명, 일반 번역사 13명, 작가 9명, 중국학 전공 4명, 한국사 전공 2명, 문학, 언어학, 예술학 전공이 각각 1명, 기타 2명으로 집계된다. 그리하여 동양학/한국학 전공자들이 한국문학 번역을 이끌지만 통번역 전공의 번역사 수가 많지 않고 일반 번역사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작가들의 활약도 두드러지는데 이는 러시아의 독특한 번역 문화에 기인한다. 러시아 번역 전통에 있어 번역사는 작가와 동일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문학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번역사가 단순히 언어나 문학 전공자가 아닌 소설가, 시인이 되어야 한다(김현택 2018/08/20). 이러한 연유로 전공자가 초역을 하면 소설의 문체, 시의 언어, 운율, 형식 등을 예술적 기교로 재번역 혹은 감수하여 ‘예술적 텍스트’로 승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번역사와 작가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에 해당 원문의 언어를 모를지라도 시인이나 소설가가 외국어 번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인 번역사의 경우 노문학 전공 11명, 러시아 문학/통번역학 전공 2명, 러시아 어학 전공 5명, 국문학 전공 6명, 문화학 전공 2명, 일반 번역사 3명, 언론학 1명, 연출학 1명, 작가 1명, 학예연구사 1명으로 집계된다. 이처럼 노어노문학 전공자들이 주로 번역 활동을 하는 반면, 통번역학을 전공한 전문 번역사들의 활약은 단 2명으로 저조하다. 그 밖에 국문학(한국학)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특징적인데, 이를 통해 한국문학의 러시아어 번역에 있어 언어외적 전문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인의 경우 한국학/동양학 전공 8명, 일반 번역사 5명, 작가 3명으로 집계되어 러시아인 번역 현황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전공한 번역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한편 전체 번역사들의 작품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9종을 번역한 번역사가 1인, 8종은 1인, 7종은 1인, 6종은 2인, 5종은 4인, 4종은 6인, 3종은 8인, 2종은 12인으로 집계되며 기타 71명은 각각 1종씩 번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대부분의 번역사들이 1종의 번역서 출간에 그치고 있어 연속출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눈여겨 볼 점은 가장 많은 번역을 수행한 번역사가 고려인이며, 4종 이상의 다작에서도 고려인과 더불어 한국인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⁴⁰⁾. 다만 장르와 연관 지어 살펴볼 때 고전과 현대문학 번역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러시아인 번역사와 달리 고전문학 번역에 참여하는 한국

인은 10명⁴¹⁾, 고려인은 4명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단독과 공동 번역 현황을 조사해보면 121종의 번역서 가운데 63종이 단독 번역서, 52종이 공역서이며 기타 6종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단독 번역서 가운데 51종이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외국인 번역사의 작품이며, 12종이 한국인 번역사의 작품이다. 공역서 가운데에서는 35종이 외국인과 한국인의 공역, 15종이 외국인 번역사의 공역, 2종이 한국인 번역사의 공역이다.

(그림 5) 공동 및 단독 번역서 출간 현황(%)



[그림 5]와 같이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 번역은 절반 이상(54.55%)이 외국인의 단독 혹은 공역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인과 외국인 공역이 외국인 단독번역 다음으로 큰 비중(28.93%)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시대-장르적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한국인과 외국인 공역으로 현대문학 31종과 고전문학 4종이 출간되었다. 외국인 단독 번역으로 현대문학 37종과 고전문학 14종이 출간되었고, 외국인 공역으로 현대문학 6종과 고전문학 9종이 출간되었다. 한국인 단독 번역으로는 현대문학 9종과 고전문학 3종이 출간되었으며, 한국인 공역으로 현대문학 2종만이 출간되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한국

- 40) 가장 많은 번역서를 출간한 번역사는 리 그리고리(9종)와 박 미하일(8종)이다. 트로체비치가 7종을 출간, 이상운과 정인순이 6종, 승주연, 리 스타니스라브, 구델레바, 콘체비치가 5종, 김현택, 아자리나, 엘리세프, 카사트키나, 라취코프가 4종, 조주관, 김효자, 벨로바, 쿠즈네초바, 피사레바, 포가다예바, 솔다토바, 인 알렉산드르가 3종, 김선명, 맹수옥, 이은경, 조근희, 정막래, 카란다쉬, 박인나, 박 크세니야, 볼타치, 보스크레센스키, 콘드라티예바, 프로호로바, 스테파노프가 각각 2종을 번역 출간하였다.
- 41) 고전문학 번역에 참여한 한국인 10명 가운데 국문학 전공이 3명, 한국학 전공이자 귀화한 러시아인이 1명, 학예사가 1명이며 어문학 전공자는 5명에 불과하다.

인 번역사 모두 단독 번역일 경우 현대문학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번역사는 협업을 통해 고전문학 번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반면 한국인 번역사는 고전문학에서의 협업이 전무하다. 게다가 외국인과의 협업에서조차 현대문학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 장르별 번역사들의 활동 현황과 작업 방식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3.3.1 고전문학 번역사별 번역 현황 조사 및 분석⁴²⁾

*시 (시조, 한시, 향가, 가요 등)

한국의 고전 시 번역사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러시아 내 저명한 한국학자들의 빛나는 활약을 엿볼 수 있다. 고전 시 번역의 시작은 한국학의 선구자 홀로도비치에서 비롯된다. 그는 1956년에 「고려가요」, 「처용가」, 「청산별곡」, 「동 동」 등을 번역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담은 『한국고전시가문학』을 발간했다. 이후 그의 제자인 트로체비치(Троцевич), 니키티나(Никитина), 콘체비치(Концевич)⁴³⁾ 등 유능한 2세대 한국학자들이 그의 연구와 업적을 이어받아 발전시켜오고 있다. 그리하여 트로체비치의 『한국학시선집』(2105), 니키티나, 콘체비치 등의 『한국고전시가전집』(2012)이 출간되어 한국문학 번역의 전통과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언어적으로 능숙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간파하고 이를 지역과 시대에 맞는 문학 번역으로 이끌어낸 그야말로 한국 고전 문학 번역의 대가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고전 시 번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조브티스(Жовтис, 1923~1999)이다. 작가이자 뛰어난 문학연구가인 조브티스는 시와 시 언어 이론에 독보적인 학술적 기여를 한 인물이다. 시 번역의 대가이기도 한 그는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카자흐어, 우크라이나어로 많은 번역시를 남겼다. 그의 첫 한국 시 번역은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설립자라 할 수 있는 박일과의 공동 작업이다. 1954년 그의 번역은 『Дальний Восток(극동)』(No. 5) 잡지에 선보이게 되었고, 이후 1956년 카자흐스탄 국립대 예술문학출판사에서 『Корейские

42) 지면관계상 일부 번역사들의 번역 작품 및 작업 방식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43) 콘체비치는 한국어학의 권위자이다. 1973년 훈민정음을 최초로 러시아어로 번역하였으며, 한국어의 키릴 문자 표기 방법인 콘체비치 체계를 만들기도 하였다.

шестистишия(6조시)』라는 시집을 출판한다. 이후로도 그는 조선 중기 한국어로 쓰여진 고전시들을 번역하여 25권의 시집을 출판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콘체비치와 이츠코바가 학문적으로 번역한 시들 가운데 정철의 작품만을 모아 조브티스가 그의 시어로 재번역한 『외로운 학』(2009)이 출판되었다. 콘체비치(2016/04/28)는 그가 러시아에서 한국시 전파를 위해 어떤 시인도 해내지 못한 업적을 쌓았다고 추모하며, 그의 시 번역이 당대 시인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도 회고한다⁴⁴⁾.

조브티스와 더불어 한국 고전 시 번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소련을 대표하는 여류시인인 아흐마토바(Ахматова, 1889~1966)와 기토비치(Гитович, 1909~1966)이다. 홀로도비치는 동양학자들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시인이자 번역가인 기토비치와 같은 문학 활동가들도 한국문학 번역의 활동으로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기토비치의 자택에서 홀로도비치와 아흐마토바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그 결실로 기토비치의 『한국현대시인선』(1952), 아흐마토바의 『한국고전시』(1956) 번역시집이 탄생되었다(Смоляков 2015). 시조, 한시, 가사 등의 러시아어 번역은 주로 한국학 전문가들이 맡고, 기토비치와 아흐마토바는 이들의 번역본을 기반으로 러시아의 운율감과 문학적 기교를 가미하는 2차 번역을 진행하여 시문학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이렇게 탄생된 아흐마토바의 한국 시는 러시아에서 정철을 널리 알리게 되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칭송받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이들의 시집이 재출간되어 독자들이 한국 고전 시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 문학 박사이자 한국외대 러시아어학과 교수 김현택과 시인 스타니스라브 리(Станислав Ли)의 공역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한시선』은 김현택이 번역을 하고, 스타니스라브 리가 원문의 운율을 기교적으로 다듬고 재

44) 시인 마르샤크(Маршак)은 “조브티스가 한국인들만의 독창적이면서도 섬세하고 울림이 깊은 시를 본인이 진정으로 느끼고 전달했으며, 그는 타고난 예술적 번역가이다”라고 칭송한 바 있다. 오제로프(Озеров) 시인 또한 “조브티스의 번역은 원문의 시주제를 토대로 본인의 시를 쓰거나 원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작업이 아니다. 그의 번역은 마치 거울처럼 투명하게 원작의 시가 모국어로 투영되는 것과 같으며, 원작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의 배려는 러시아어와 러시아 시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평한다(Концевич 재인용).

번역하여 탄생시킨 작품이다. 이와 같은 번역 방식과 노력의 결실은 러시아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이는 민족 고유의 사유 양식과 아름다운 감각을 표현하는 예술문학인 한시의 번역이 비단 러시아 한국학 전공자들과 작가들만의 영역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뜻 깊은 계기로 여겨진다.

러시아 국립인문대 한국학과 교수 콘트라지예바(Кондратьева)는 『용비어천가』(2011)를 번역 출간하였다. 한국 고전문학 박사로서 그의 주해와 해석을 덧붙인 연구 결과물이기도 한 『용비어천가』는 1천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를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한국어의 변천과정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그는 최근 『월인석보』 번역서 및 해석서를 출간하는 등 한국의 고전문학을 러시아에 알리는데 앞장서는 번역사이자 후학 양성을 이끄는 차세대 한국학자라 할 수 있겠다.

*고전소설

고전 소설 또한 한국학자들의 방대한 연구와 번역 작업의 발자취이다.

대표적인 고전소설 번역가는 트로체비치이다. 『춘향전』과 조선 중기 소설 장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트로체비치는 홀로도비치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한국학자로서 고전소설 연구와 한국문학의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2000년대 이전에도 한국 고전소설 번역에 앞장섰던 그는 러시아 동방학연구소에서 한국 고전문학의 러시아어 번역에 공헌하여 제2회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그의 편집과 운문 책임 하에 여러 권의 한국 고전소설과 시가 재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예로 『19세기 한국소설 여관에서의 한가한 대화』(2016) 외에 작가 코미사로프(Комиссарова)와 공동 작업한 『구운몽』(2010), 라취코프(Рачков)⁴⁵⁾, 바실리예프(Васильев)⁴⁶⁾, 크롤(Кроль)과 작업한 『18~19세기 중세소설: 춘향전』, 엘리세프(Елисеев)와 작업한 『창선감의록』를 들 수 있다. 트로체비치와

더불어 홀로도비치의 첫 제자였던 임수도 주목할 만하다. 스승의 도움을 받아 트로체비치, 니키티나와 함께 「춘향전」, 「홍길동전」, 「장끼전」 등 한국의 고전소설을 최초 번역하는데 동참했던 그가 라취코프와 함께 번역한 『18~19세기 중세소설』(2009)이 재출간 된 것이다.

한편 한학자들의 활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한학 문학가이자 번역가인 소로킨(Сорокин)과 보스크레센스키가 공저로 『금오신화』(1972)를 출간하여 러시아에서의 한문문학 번역의 시대를 처음 열었다. 그리고 동 번역서는 『김시습: 금오신화』(2003)로 재출간되었으며, 라취코프까지 참여한 『금오신화』(2011)도 새롭게 번역 출판되었다.

고려인과 한국인의 고전소설 번역 참여도 눈길을 끈다. 작가 아나톨리 김과 김현택은 『춘향전』(2003)을 공역 출간하였다. 1938년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3세로 태어난 아나톨리 김은 파스테르나크나 솔제니친 같은 러시아의 노벨상 수상 작가들에 견주어질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러시아 작가로 꼽힌다. 러시아어로 글쓰는 한국인이라는 경계인 정체성 덕에 작가가 될 수 있었다는 그가 김현택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춘향전』을 러시아어로 완역하였다(김영기, 2015/05/12). 이는 독자들에게는 페테르부르크 한국학파들의 『춘향전』과는 색다른 21세기 새로운 『춘향전』을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고전소설의 번역 문화 차원에서는 러시아내 한국학자들의 학문적 접근에서 벗어나 순수문학적 접근으로 문학전문가와 작가의 새로운 협력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미를 갖는다.

*기타 (설화/ 기록문학)

설화와 기록문학에 있어서도 한국학자들의 노고가 계속된다.

설화의 경우 콘체비치가 『한국신화-전설집』(1980)을 니키티나와 공동으로 번역하여 출간한 바 있다. 엘리세프 또한 1970년 이후 『패설문학선집: 15~17세기』부터 시작하여 여러 편의 설화를 번역한 바 있으며, 성현의 작품은 대부분 그가 도맡아 번역해왔다(엄순천 2003: 71-77). 그리고 그의 『패설문학선집』(2008)이 재출간되었다. 이처럼 한국학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설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왔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작업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트로체비치의 책임편집과 운문 하에 콘체비치, 엘리세프, 미하일 박, 솔로비에

45) 라취코프는 1964년 현대 한국어 동사 시제로 박사논문을 받았으며, 한국어 발음, 문법 등 한국어 교육과 문학에 힘쓰는 학자이다.

46) 바실리예프는 20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 개설된 한국학과의 전신인 한국어 문화원을 1995년에 설립한 인물이다. 1996년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전공 저널인 『한국어 문화 소식지』를 창간하여 2016년까지 18개 저널을 발간하였다.

프(Соловьев), 티호노프(Тихонов, 박노자)가 번역한 『한국고전신화, 설화, 전설선집』(2014)이 출간되었다. 동 번역서에는 1980년 트로체비치, 콘체비치, 니키타나, 쥐다노프(Жданова), 비트코프스키(Витковский), 미하일 박이 번역 출간한 『중세문헌 한국 설화』와 『중세한국신화 전설집』의 일부 작품이 새로운 번역으로 각색되어 담겨있다.

전래동화의 경우 모스크바 국립대 정인순 교수와 한국어학, 한국문학, 민속, 문화연구자인 포가다예바(Погадаева)가 공역으로 『한국전래동화』(2018)를 출간하였으며, 카란다쉬가 고려인 청소년을 위해 한글과 러시아어를 병기하여 번역한 『한국 전래 동화』(2015, 2017)가 출간되었다.

기록문학에서는 볼타츠(Болтац)라는 신진 번역사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동방학부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후 러시아과학원 동양문서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는 그는 편찬학, 사료학, 역사연구방법론을 전공하였으며, 해동고승전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해동고승전』(2007)이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더불어 9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번역한 그의 『삼국유사』(2018) 번역 및 주해가 출판되었다. 한국 고전문학 번역의 선구자 역할을 하던 스승들의 뜻을 이어받아 제 3세대 한국학자로서 페테르부르크학과의 고전문학 번역 명맥을 잇는 것이다.

『삼국사기』(2001)를 번역한 모스크바학과의 대표적인 한국학자 미하일 박의 노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평생을 바친 그의 『삼국사기』 번역은 서구 언어 가운데 첫 번역이며, 해외 한국학 연구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다(배영대 2003/03/25). 특히 그는 텍스트 속 진의를 문맥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 사서를 참고하며 잘못된 역사를 반박하고 역사적 진리를 캐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그가 최초 번역한 『신라본기』(1959) 러시아어 번역이 중국, 일본학의 동료들에게 사서(史書) 원자료의 번역에 대한 동기 부여를 주게 되어 동양학 전체 연구 및 번역의 범주를 크게 끌어올렸다는데 번역의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ibid).

한편 국문학자와 한국어문학자의 기록문학 번역을 위한 협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훈민정음 해례본』(2010)은 서울대 교수 김주원과 이상익이 문자로서 훈민정음의 언어학적 의의와 책으로서 훈민정음의 서지적 특징을 자세히 풀이하고, 강신향이 훈민정음 원문을 현대어로 번역한 다음 앳크닌(Аткинин)이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탄생된 것이다(국립국어원). 이는 훈민정음의 가치 보급과 러시아어권 독자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 기록문학의 러시아어 번역이 러시아 내 한국학자들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순수 한국인 국문학자가 러시아어로의 고전 번역 작업에 직접 참여한 최초 사례를 만들고, 러시아내 한국학자와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한 첫 사례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합해볼 때 설화와 기록문학에서는 주로 러시아의 한국학자, 작가들에 의해서 번역되고 있으며, 국내 국문학자의 참여를 제외한다면 노문학 전공 출신의 한국인 번역사들의 경우 전래동화 번역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2 현대문학 번역사별 작품 현황 및 분석

*현대 시

현대 시 번역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협업이 두드러진다. 노문학 전공의 연세대 교수 김진영과 시인 야스노프(Яснoв)는 『정현중 시선집: 환합니다』(2000)를, 한국 외대 교수 김현택과 고리키 문학창작대학 시번역 전공의 피사레바(Писарева) 교수는 『한국현대 대표시선』(2005)을, 뿌쉬킨하우스 원장 김선명은 피사레바와 이규형의 『또 다시 떠나면서』(2009)를 공역하였다. 어학전공 교수 정인순은 어학 및 민속문화 전공의 포가다예바와 오세영의 『천년의 잠』(2017)을, 김태옥과 이바니츠키(Иваницкий)는 『신선한 아침나라의 열정: 20세기 한국의 시인들』(2012), 언어학 전공의 맹수옥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번역학 전공의 리 그리고리(Ли Григорий)는 송찬호의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2012)을 번역 출간하였다. 문학 전공의 이은경은 시인이자 화가 스타니스라브 리와 고은의 『만인보』(2010)와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2017)를 번역하였고, 문학전공의 모스크바 고리키문학대 교수 김여춘은 시인 발라쇼프(Балашов)와 『진달래꽃: 김소월 시선집』(2003)를 공역 출간하였다.

러시아인 번역사의 공역서로는 조브티스와 박일의 『김소월 그리고 강변살자』(2002)와 포홀코바(Похолкова)와 솔다토프(Солдатов)의 문정희 시집 『바람의 눈을 따라(Вслед за ветром)』(2015)⁴⁷⁾가 있다.

단독 시 번역의 경우 소설가 박 미하일(Пак михай л) 번역의 신동춘의

시(2003), 기토비치 번역의 『한국현대시인선』(2017), 그리고 리 번역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노래』(2012), 『정지용 시선』(2009)가 출간되었다.

한편 노문학 전공의 연세대 교수 조주관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2016), 정호승의 『수선화에게』(2017),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2017)를, 문학전공의 러시아학과아카데미 세계문학연구소 교수 김례호가 『진달래꽃: 김소월시선집』(2003)을 번역 출간하였다. 한국 시학을 전공한 굴리스타인 이육사의 『봄은 오는가- 한국현대시선집』(2003)을, 피사레바가 한용운 외 근대와 현대시를 모은 『당신이 신이다(Сборник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2014)를 번역 출간하였다.

이처럼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큼 까다롭기에 문학 번역의 정수라 불리는 시 번역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번역사 모두 시학, 문학 전공자들이 주로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거 조브티스, 박일, 기토비치 등 주로 러시아 시인들이 한국의 현대시 번역에 앞장서왔음에도 불구하고(엄순천 2003) 2000년대 이후 이 어렵고 난해한 작업에 국내 노문학 전공의 번역사가 동참하고 있는 일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 소설

과거 E.제와 카라소프, 티호노프와 암킨 외에 공역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과 달리(엄순천 2003: 79) 2000년대 이후 현대소설 번역에 있어서는 공역, 특히 한국인과 외국인 번역사 간의 협력이 활성화된 것이 특징이다. 언어학 전공의 승주연은 구델레바(Гуделева)와 공역으로 김영하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2016), 오정희의 『불의 강』(2012), 천명관의 『고령화가죽』(2013), 김애란의 『침이 고인다』(2014),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2017)를 출간하였으며, 제15회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하는 등 가장 활발한 번역 활동을 하고 있다. 승주연은 라예프스카야(Раевская)와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2006)를

47) 모스크바국립외국어대 한국어 통번역학 교수 포홀코바와 솔다토바는 전문 번역 교육을 받은 번역사이다. 『바람의 눈을 따라』는 작가의 요청으로 이들에 의해 번역이 이루어졌다. 번역집에 들어갈 작품 선정과 제목 또한 러시아 독자들의 취향과 시장의 호응을 예상하여 선정하도록 이들에게 맡겨졌기에 국내에는 똑같은 시선집이 부재하다(Russia Beyond 2016/12/07).

공역하기도 하였다. 어학 전공의 유승만은 모졸(Мозоль)과 염상섭의 『만세전』(2009)을, 문학 전공의 백승무는 한국학 전공의 시로트코-시비르스카야(Сиротко-Сибирская)와 김동리의 『김동리 단편선: 까치소리』(2010)를 번역 출간하였다. 번역학 전공의 리 그리고리는 맹수옥과 이현수의 『신기생똥』(2013)을, 김가베와는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2015)를 번역 출간하는 등 현대 시 외에 소설 공역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 교수 김승우와 김효지는 한국학 전공의 인 알렉산드르와 각각 『한국 근대 단편집: 혈서 외 7편』(2003)과 『한국 현대 단편선』(2003)을 공역, 모스크바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정인순과 카사트키나(Касаткина)는 이청준의 『서편제』(2010)를, 상트페테르부르크 게르첸 사범대학 동양어학부 교수 이상윤은 러시아어 교육 전공의 선문대 가파루슈키나(Капарушкина)와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2011)을 공역하여 출간하였다. 그 밖에 박 미하일과 북한출신 번역사 호순철이 번역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2012), 김효석과 김 발레리(Ким Валерий)가 번역한 이호철의 『남녘사람 북녘사람』(2014)도 출간되었다.

외국인 번역사 간의 공역도 눈에 띈다. 박 미하일과 텐 류보비(Тен Любовь)는 윤후명의 『둔황의 사랑』(2012)을, 리 그리고리와 인 알렉산드르(Ин Александр)는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2009), 구텔레바와 크로코바야는 오정희의 『새』(2008)를 작업했다.

한국인 번역사도 소설 공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문학 전공의 단국대 교수 함영준과 이상윤이 공역한 박완서의 『박완서 단편소설선』(2011), 이상윤과 조근희가 공역한 은희경의 『비밀과 거짓말』(2010)이 그 예이다.

이처럼 공역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현대소설에 가장 많은 번역출판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공동번역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번역(출판) 지원 조건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공동 번역이 가능한 자, 한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주번역과 보조 번역으로 역할 분담이 가능한 자, 외국인과의 공동 번역으로 번역을 완료하고 이미 출판에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정도로(대산문화재단) 공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단독 번역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외국인 번역사들의 활약이 독보적이다. 한국어문학 전공의 아자리나(Азарина)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그는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2016),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2015), 박완서의 『친절

한 복희씨』(2014), 한창훈의 『나는 여기가 좋다』(2017)를 번역하였다. 벨로바(Белова)는 최인호의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2016), 김연수의 『세계의 끝, 여자친구』(2014)를 번역하였다. 이들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아카데미 과정⁴⁸⁾ 출신으로 현대소설 번역의 신예라 할 수 있는 이들의 활발한 활동은 동 과정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그리고리 리가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2017), 김연수의 『원더보이』(2015)를 번역 출간하여 문학전문 번역사로서 그의 활약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박 미하일이 번역한 박경리의 『토지』,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도 2016년 출판되었다. 한편 신경숙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2014)와 『엄마를 부탁해』(2012)를 번역한 프로호로바(Прохорова)는 영어 번역사이다. 이를 통해 한국 현대소설 일부가 중역으로 번역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번역사 가운데에는 문학 전공의 중앙대 교수 김근식이 전문 통번역 교육을 받은 최초 번역사로서 한국 현대소설 번역의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러시아 번역사들에 의해 출간된 이문열의 『금시조』, 이청준의 『소문의 벽』, 이렇게 불과 2편에 불과할 정도로 고전소설 외에 현대소설의 불모지라 여겨졌던 러시아 문학 시장에 1999년 최초로 김주영의 『친둥 소리』, 그리고 2003년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를 번역하여 한국 현대소설의 독창성을 러시아에 알렸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상윤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상윤은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2015),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2016), 한강의 『채식주의자』(2018)를 단독 번역하는 등 현대소설 번역에 앞장서고 있다.

*수필/ 희곡/ 아동문학

수필에서는 모스크바대 한국학 센터의 역할이 크다. 1972년 『수필문학』이란 월간 문예지를 창간하던 당시 피천득 작가와 인연을 맺은 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 김승우와 수필가이자 일본 문학가인 김효자의 편집 및 교정 하에 정인순이 초벌, 카사트키나가 윤문하여 피천득의 『인연』(2005)이 러시아어로 출간되었다. 정인순과 카사트키나는 이어령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2011) 작품

48) 한국문학번역원은 차세대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 전문번역교육기관인 번역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노어권 수료생 가운데에는 아자리나, 벨로바, 쿠즈네초바, 박인나 총 4명이 번역서를 출간하였다(한국문학번역원 요청 자료)

도 공역하였으며, 김효자가 본인 저서인 『이별과 만남』(2003)을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하기도 하였다.

희곡은 문학 전공의 계명대학교 교수 정막래와 스테파노프(Стпанов)가 최인훈의 『최인훈 희곡집, 옛날 옛적에 휘이휘이』(2004)를 번역하였는데, 스테파노프는 체호프 전문가이기도 하다. 『한국 연극』(2004)의 번역팀도 주목할만 하다. 김원석은 러시아 최고의 무대예술 전문학교인 기티스 연출가를 졸업 후 모스크바 시립극장 상임 연출가로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최초의 한국인이고, 전정옥은 모스크바국립대 희곡문학을 전공을 전공한 극전문가이며, 니로프(Нилов)는 배우이자 극작가, 연출가이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한국의 희곡 작품이 최초로 번역 소개된 것도 환영할 일이지만, 희곡 전문가들의 대거 참여가 이루어지는 일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문학 번역의 경우 쿠즈네초바(Кузнецова)가 오진원의 『플로라의 비밀』(2015)을, 호홀로바(Хохлова)가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2015)을 번역하였다. 특히 한국 고전 미술을 전공중인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한국학과 교수 호홀로바는 한국 현대미술 소개 외에도 아동문학 번역에 큰 열정을 보이고 있어(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차세대 한국학자들의 번역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출판사별 번역 현황 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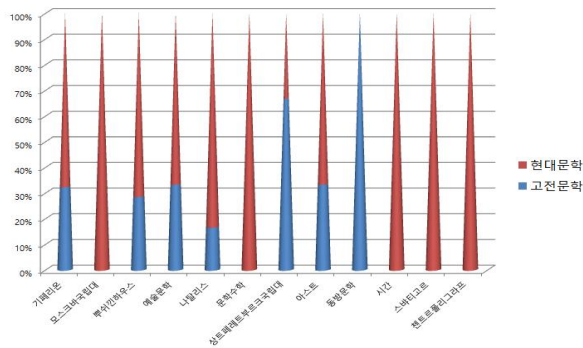
121종의 한국문학 번역서는 41개 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이 가운데 ‘기페리온(Гиперион)’ 출판사⁴⁹⁾가 34종을 출간하여 전체 한국문학 번역 출판의 28.1% 가량을 도맡고 있다. 다음으로 ‘모스크바국립대’가 9종, ‘뿌쉬긴하우스’가 7종, ‘예술문학(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과 ‘나탈리스(Наталис)’, ‘문학학습(Литературная учёба)’ 출판사가 5종을 출판하였다. 3종을 출판한 사례가 가장 많은데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아스트(АСТ)’, ‘동양문학(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시간(Время)’, ‘스바티고르(Святигор)’, ‘루도미노

49) 기페리온은 1995년 설립되어 러시아, CIS,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 지사가 있는 국제적인 출판사이다. 일본을 비롯하여 동양의 고전문학, 역사, 문화, 예술을 전문으로 하며 관련 서적을 100권 이상 출판하였다(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Рудомино)', '첸트르폴리그래프(Центрполиграф)'가 여기에 해당된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연구소'와 '외국문학', '3월 1일(Первое Марта)'출판사는 각각 2종을 출판하였고, 기타 25개 출판사가 1종만을 출판하였다. 이를 통해 68.29%의 출판사가 1~2종의 단발성 출판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문학이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낮아 연속 출판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출판사에 의해 한국문학 번역이 보다 특화되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한편 3종 이상의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 출간한 출판사와 시대-장르별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출판사별 한국문학 러시아어 번역서의 시대-장르별 비중(%)



상기 그래프를 살펴보면 '동방문학',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출판사'의 경우 고전문학을 전문으로 하거나 고전문학 비율이 현대문학 출판 비율보다 높다. '상트페테르부르크대 출판사'는 한국고전 번역이 태동된 곳으로서 여전히 고전문학 번역 출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방문학' 또한 과거에도 한국문학을 다뤘었으며 고전과 현대문학을 비교적 고른 비율로 출판해왔다(엄순천 2003: 82). 이와 반대로 현대문학만을 다루는 출판사가 있다. '모스크바국립대', '문학학습', '시간', '스타타고르', '첸트르폴리그래프'가 여기에 해당된다. '모스크바국립대'의 경우 과거부터 실용문학에 집중해 현대문학 번역 위주로 출간해 온 분위기가 2000년대 이후에도 남아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출판사들

은 한국문학 출판 경험 경험이 적어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해 수요층이 넓은 현대문학을 다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출판 종 수 면에서 상위에 있는 '기페리온', '뿌쉬킨하우스', '예술문학'과 같은 출판사들은 현대문학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고전문학 번역 출간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기페리온은 2007년 러시아에서 한국문학의 연구업적을 집대성한다는 기치하에 5년간 고전문학 20종을 엄선하여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러시아 고전문학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그 결과 10종50의 고전문학을 성공적으로 출간하였고, 한국문학 번역 이래 최초로 한국 문학번역을 지원하는 기관과 러시아 현지 출판사 간의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진 기획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 분석결과 종합 및 논의

2000년대 이후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의 출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행본 기준으로 121종이 집계되었다.

장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와 마찬가지로 소설 59종(48.76%) > 시 33종(27.27%) > 기타 13종(10.74%) > 수필 10종 (8.26%) > 간행물 4종(3.31%) > 희곡 2종(1.65%)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시대-장르별 분류에서는 과거 고전 기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는 현대 장편소설이 문학 번역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전문학 가운데 고전 시와 고전 기타에서는 과거 소개되었던 작가의 번역서 재출간과 새로운 작가 작품의 발굴 및 번역 소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면, 고전 소설에서는 새로운 작품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 문학 가운데 현대 시는 과거 북한 작가 위주로 여러 시인의 민족 해방 주제 시선집이 소개된 반면, 2000년대 이후 남한 작가의 순수 문학 서정시집이 번역 출간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현대 소설 또한 과

5) 10종은 1)폐쇄문학전집, 2)18-19세기 중세소설(1), 3)18-19세기 중세소설(2), 4)구운몽, 5)한국한문학선집, 6)한국고전신화, 설화, 전설선집, 7)한국한시선집, 8)한국고전시가선집, 9)금오신화, 10)19세기 한국소설 여관에서 한가한 대화로 구성된다.

거 복한 작가가 쓴 사회주의 리얼리즘 주제의 작품집이 대거 소개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특정 남한 작가의 순수 문학 작품집이 번역 출간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여성작가의 작품 수 확대와 수상작 위주의 작품 선정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수필, 희곡, 아동문학으로 번역 장르 또한 확대되었다.

번역사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전체 103명의 번역사 가운데 여전히 러시아인(57명)의 비중이 크지만 한국인(33명)과 고려인(16명)의 활동이 늘었음을 확인하였다. 어문학 전공의 번역사가 가장 비중(37명)이 높았으며 전문 통번역교육을 받은 번역사(8명)의 수가 적은 반면 일반 번역사(21명)의 수가 많았다. 번역사 대부분 1종 번역서 출간에 그치고 있었으며, 단독 번역이 공역보다 많으나, 공역에 있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공역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고전문학에서 한국인 번역사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판사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페리온이 한국문학 번역서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고, 70%의 출판사가 1~2종의 단발성 출판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출판사마다 특정 시대-장르를 전문으로 하거나 선호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한국문학 번역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 대상 작가와 작품 선정을 위해 러시아 문학계의 흐름을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 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 지원 출간 사업에 힘입어 한국문학 번역의 규모와 장르가 대폭 늘었으나 대부분 수상작이나 베스트셀러와 같은 국내에서 인기 있고 문학성을 인정받는 작품 위주로 번역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품선정이 경우에 따라 러시아 문학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⁵¹⁾이 러시아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카사트키나는 번역서 선정을

51)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오세트로바(Осетрова 2015/03/28)는 “한국문학 번역서 대부분이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 번역 지원 대상 서지목록에 기반하여 지원된다. 고전부터 현대까지 장르와 주제, 작가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두 한국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작품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국내의 인기가 해외에서의 인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반향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라고 지적한다. 포홀코바 또한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 대상 목록을 보면 저자와 작품 선정이 러시아 독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 타겟 독자층의 문학적 취향을 고려하고 그들의 시대적 흐름에 매우 특별하게 울림을 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Осетрова 2015/03/28 재인용).

이야 말로 모든 것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일갈하며 “단순히 한국인의 의견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 대상 작가의 창작에 대한 가치관, 작품의 세계관, 주제, 문제의식, 문체 등을 파악한 이후 러시아어로의 번역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면밀한 분석을 하고 나서야 이 소설이 러시아 대중에게 읽혀질지, 흥미로울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번역 대상서 및 작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기페리온 출판사 대표는 “한국 현대문학에는 남북 분단이라는 매우 독특한 역사 특수성이 있다. 어느 작품이든 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슬픔과 한, 서러움 등이 느껴진다. 가볍고 흥미로우면서도 통찰력 있는 작품도 있었지만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현재까지 번역 소개된 작품의 독자 반응, 성공과 실패의 원인 분석, 러시아 출판계 동향 분석,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하여 번역사, 출판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러시아어 전문 문학번역가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고도로 전문화된 번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영미권 진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데에는 원작의 작품성과 문학 전문 출판사의 효과적 마케팅도 있었지만 탁월한 번역이 주효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한국학자, 출판사, 독자 모두 한목소리로 한국문학 번역의 품질을 문제 삼는다. 한국문학이 독자들에게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 이유가 저질의 번역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번역사의 전문성 결여에 있다. 분석 결과 번역을 전문적으로 배운 번역사가 턱없이 부족 또는 문학 전문 번역사로의 활동이 저조한 반면 외국어를 구사하는 일반인들의 1회성 번역 참여가 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번역의 오류, 오역, 예술적 가치 훼손, 중역⁵²⁾에 대한 지적과 품질 평가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⁵³⁾. 이는 결국 번역지원정책으로 번역사와 번

52) 출판사들 또한 번역 품질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부 출판사의 경우 영어를 통한 중역으로 한국문학 번역서를 출간하기도 한다. 『엄마를 부탁해』(2012)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문한 번역사의 번역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동 작품은 오역과 실수는 물론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는데 실패했다.

53) 이상윤(2014/05/05)은 러시아 독자들이 고전 문학에서 벗어나 현대 문학을 많이 접

역서의 양적 팽창은 있었으나 번역 품질은 여전히 불안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 문학번역사 양성 프로그램은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가 문학번역사 양성의 유일한 산실 역할을 할 정도로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화여대통번역대학원이 문학번역 전문 교육 기관으로 문학번역사 양성에 매진하고 있지만 노어과정은 부재하다. 그러므로 국내 러시아어 전문통번역교육기관들의 문학번역 과목 개설 타진, 한국 및 러시아 문학번역원과의 협력 모색,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극동지역 내 한국어문학 및 통번역 전문 교육기관과 문학번역 교육 프로그램 공유, 세미나 및 관련 번역 사업 추진 등 문학번역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고전문학 번역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고전소설은 러시아내 한국학자들이 과거 북한 번역 원전을 기반으로 번역한 작품이 재출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국문학자들의 참여 사례를 제외하고 한국인 번역사의 참여가 저조, 외국인과의 공역도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50~60년대 북한이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고전 번역을 활발히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전번역 후속세대를 기르지 못한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민간주도에서 정부로 고전사업이 이전되면서⁵⁴⁾ 고전문학 번역이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남한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을 추월하여 오늘날 수백여 권의 국역서를 새로이 발간하고 있다. 특히 기존 번역의 오류, 오역을 교정하여 재번역하거나 고전소설, 고전시집, 기록문학, 고전대중서, 초·중·고용 고전 도서를 다양하게 출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치있는 국역고전 목록을 러시아의 고전문학 전문 혹은 관심있는 현지 출판사들과 공유하고, 국문학자, 노어노문학자, 러시아의 한국학자, 한문학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함께 고전번역기획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한국문학의 장르 다변화와 출판사들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최근 일부 소설이 한국학과 무관한 일반 번역사들의 결과물로 인해 여러 오역과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아자리나 또한 현재 러시아에 출판된 한국문학의 번역이 읽을 수는 있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예술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하면서 “러시아어 문학 번역이 일반 러시아어 구사자가 아닌 전문 편집인의 엄격한 평가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Осетрова 2015/03/28 재인용).

54) 1965년 설립된 민간 법인 민족문화추진회가 초기 번역사업을 이끌었으나 2007년부터는 이를 모태로 출범한 한국고전번역원이 고전 사업을 지휘한다.

의 전문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러시아내 한국학 발전의 깊이를 더하고,⁵⁵⁾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결론

러시아는 한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워 오랜 역사에 걸쳐 정치, 사회, 문화 교류를 해온 중요한 국가이다. 문학 번역 교류 또한 120의 긴 세월을 자랑하지만 러시아에서 한국 문학의 입지는 중국과 일본 문학에 비해 여전히 초라하다. 이는 120년이라는 시간 속에 역사적 풍파로 한국문학 번역 교류의 긴 공백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일본, 중국 문학이 동양문학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 까닭이다. 그나마 문학 교류가 활성화된 시기에도 정치적 환경 탓에 북한 문학으로 채워져 남한 문학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는 불과 20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행히 20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한국문학의 러시아어 번역과 번역서의 진출은 이전 100년의 성과만큼이나 발전이 있었다. 게다가 일본과 중국 문학의 앞선 자리매김이 한국문학의 러시아 진출에 걸림돌로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덕분에 러시아 문학계에서 동양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동양문학과 철학을 동경하고 선호하는 수준 높은 독자층 또한 탄탄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러한 성과와 문학적 분위기가 디딤돌이 되어 한국문학이 당당하게 동양문학의 중심 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출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한국문학의 현주소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의 러시아어 번역사(史를) 정리하는 작업의 중요한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번역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보탬이 될 것이다.

55) 러시아 국립인문대 한국학과 교수 콘트라지예바(2016.07.29)는 “한류 영향으로 러시아 대학에서 한국학·한국어과 개설이 붐인데 대부분 한국어와 현대 한국문화를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전문학 연구 등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연구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라고 토로하여 고전문학 연구 및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엄순천 (2003) 「러시아에서의 한국문학 번역현황 조사 및 분석」, 『러시아연구』 13(2): 59-92.
- 엄순천 (2004a) 「러시아의 한국문학 연구 현황에 대하여」, 『동유럽발칸학』 69: 167-198
- 엄순천 (2004b) 「러시아에서 한국문학 수용과 문학-문화교류」, 『백산학회』 69: 333-366.
- 엄순천 (2006)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개별작품의 수용 사례 분석」, 『한국시베리아연구』 9: 133-161.
- 이혜은 (2015) 「구한말 러시아의 한국 고서 수집 양상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와 동방학연구소 소장본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46: 61-83.
- 전성희 (2008) 「러시아에서 최초로 번역·출판된 『한국설화』의 성격과 특징」, 『韓國民俗學』 48(1): 261-297.
- 최인나 (2007) 「러시아에서의 한국고전문학: 러시아어로 번역의 역사에 관하여」, 『한국학논집』 35: 259-279.
- Смоляков (2015) 「기빠리온 출판사 대표 발제문」, 『제14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 프로시딩』.
- <인터넷 자료>
- 김기현 (2001.03.18) 「한국사신론 러시아어로 나왔다」, 『스포츠동아』 2018년 8월 20일 검색.
- 김기현 (2002.12.06) 「춘향전 러시아어로 번역 한국계 작가 아나톨리 김」, 『스포츠동아』, 2018년 8월 20일 검색.
- 김기현 (2002.12.06) 「춘향전 러시아어로 번역 한국계 작가 아나톨리 김」, 『스포츠동아』, 2018년 8월 20일 검색.
- 김현택 「한국 현대시의 러시아 나들이 - 러시아어譯 『한국현대 대표시선』」, 『대산문화』, 2018년 8월 20일 검색.
- 배영대 (2003.03.25) 「‘삼국사기’ 러시아어로 최초 완역」, 『중앙일보』, 2018년 8

- 월 20일 검색.
- 양은하 (2014.02.19.) 「‘한국한시선 백송이의 꽃’ 러시아서 집중 조명」, 『뉴스1』, 2018년 8월 20일 검색.
- 이천열 (2012.02.13) 「난중일기,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 『서울신문』, 2018년 8월 20일 검색.
- 콘트라지에바 (2016.07.29) 「<사람들> '용비어천가' 러시아에 알린 엘레나 콘트라지에바 교수」, 『연합뉴스』, 2018년 8월 20일 검색.
- 허연, 이경진 (2011.11.09) 「러시아 차세대 한국학자 인터뷰(2) - 마리아 오세트로바」, 『KOFICE』, 2018년 8월 20일 검색.
- Концевич (2016.04.28) Вечер памяти Александра Лазаревича Жовтиса (1923-1999) в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6 апреля 2013 г. , 『Корё сарам』.
- Ли Сан Юн (2014.05.05) 「Критический обзор переводов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России в 1990-2010 гг.」, 『Корё сарам』.
- Осетрова (2015.03.28) 「Ждать ли нам корейского бестселлера?」, 『Корё сарам』.
- Широков (2003.12.19) Стихи, написанные на ханмуне. “Сто цветов” , 『Корё сарам』.

<기관 사이트>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 대산문화재단 www.daesan.or.kr
- 한국고전번역원 www.itkc.or.kr
- 한국문학번역원 www.ltikorea.or.kr
- 한국문화재단 <https://www.chf.or.kr>
- Russia Beyod <https://kr.rbth.com/>

[Abstract]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translation and publication Korean literature in Russia since the 2000s

Han, Hyun-Hee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Russian since the 2000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dissemin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Russia.

As a result of analysis, since the 2000s 121 Russian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have been published.

1) By genre it followed by novels, poetry, others, essays, journals, drama. However, in the past, ‘classical others’ occupied the largest part, but ‘modern novels’ occupied a large portion after the 2000s.

2) By writer, it turns out that the translation of a new author’s work is not done in ‘classic novel’. In the ‘modern poetry’ and ‘modern novel’, the works of Korean writers, not North Korean writers, are being published. The introduction of female writers and award-winning works are actively translated and published. The translation genre of Korean literature expanded to essays, plays, and children’s literature.

3) By composition of the translator, 103 translators are counted. Among them, the percentage of Russians is still large, but it is confirmed that the activities of Koreans and Russian Koreans are increasing. However, the number of translators who received professional translation training was small. Participation of Korean translators in classical literature translation was poor.

4) By publisher, a specific publisher was responsible for 30% of Korean

literary translations. Most of the rest of the publishers only published one or two works. However, each publisher confirmed that there is a particular age - genre specialization or preference.

▶ Key Words: Kore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Russian,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Russia, trends of translation of literature, problem of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 주제어: 한국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러시아 내 한국문학의 지위, 문학 번역 동향, 한국 문학 번역의 문제

한현희

경희대학교 시간강사

hhypa@naver.com

관심분야: 러시아어 통번역, 문학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24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27일